

『黃帝內經』에 나타난 脾臟의 기능에 대한 考察

¹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 ²韓醫學古典研究所
金鍾鉉^{1, 2} · 丁彰炫^{1, 2} · 張祐彰^{1, 2} · 白裕相^{1, 2} *

A Study on the Function of Pi(脾) in *Huangdineijing*

Kim Jong-hyun^{1, 2} · Jeong Chang-hyun^{1, 2} · Jang Woo-chang^{1, 2} · Baik You-sang^{1, 2} *

¹Dep.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²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Kyunghee University

Objectives : This paper examines how the Pi(脾) function was understood in the time of the *Huangdineijing*.

Methods : The contents were analyzed and categorized through examining the verses within the *Huangdineijing*, followed by comparison with a recent publication on the topic.

Results & Conclusions : According to the *Huangdineijing*, there are two major functions of the Spleen. One is producing and distributing Jing Qi from food, the other is managing the Qi cycle of the body. The former function could again be sub-categorized into the part focusing on production and that focusing on distribution. In the *Huangdineijing Yanjiu Dacheng*(黃帝內經研究大成, *Great Findings from the Study of Hungdineijing*) the contents were mostly similar, with the exception of some parts.

Key Words : Pi(脾), Huangdineijing(黃帝內經), Zhangshang(藏象)

I. 序 論

한의학에서는 역대로 脾의 기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李東垣에 이르러서는 脾의 중

요성이 크게 강조되었으며, 溫病學과 사상체질의학에까지 脾의 기능과 관련한 다양한 이론이 발전하였다. 각각의 이론들은 이전의 것으로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던 이론적, 임상적 문제를 타개하고자 등장하였으며, 그 때마다 새로운 개념들을 설정하였다. 한편 현재의 의학자들은 역사적 과정을 거쳐 형성된 다양한 정보들을 한꺼번에 접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때문에 여러 개념들의 성립배경과 의미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기능을 확정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려 할 때는 오히려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더욱

* Corresponding Author : Baik You-sang, 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1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Korea.
Tel: +82-2-961-0326 Fax: +82-2-961-9229
E-mail : baikys@khu.ac.kr
Received(29 July 2015), Revised(14 August 2015), Accepted(17 August 2015).

이 근세 이후로 서양의학이 소개됨에 따라 脾의 기능을 비장(Spleen), 혹은 췌장(Pancreas)과 비교 설명하는 경우까지 더해지면서 혼란이 더욱 가중되었다.¹⁾ 필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脾 기능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脾의 기능에 대한 학설이 발전하는 과정을 밝힘으로써 다양한 개념이 뒤섞이는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을 토대로 현대의 脾臟 기능을 정립하여 한의학 내부 및 타 학문과의 소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줄일 수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장기적인 연구의 출발점으로서 『黃帝內經』에 나타난 脾臟의 기능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黃帝內經』이 最古의 醫學經典일 뿐 아니라 後代 醫論들을 성립하는 기준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黃帝內經』 자체의 이론에 초점을 맞춰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존 자료는 1999년에 출판된 『黃帝內經研究大成』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이 서적과 함께 2000년 이후로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기존 연구를 검토했다. 안타깝게도 국내에는 이와 대응하는 선행연구를 찾을 수 없었다.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을 살펴보면, 蘇建華²⁾는 『黃帝內經』의 脾陰 개념에 대해 논하였고, 高小玲³⁾, 李銀華⁴⁾는 특정 구절에 대해 해석을 시도하였다. 陳麗斌⁵⁾, 潘光明⁶⁾, 湯川安⁷⁾ 등은 脾와 다른 장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구하였다. 郝軍⁸⁾과 李淑萍⁹⁾은 『黃帝內經』

에서의 脾病을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劉黎明¹⁰⁾, 王宏利¹¹⁾는 脾와 관련된 表現語의 성립 배경을 문자학, 고문헌과의 비교 등을 통해 고증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은 특정 구절을 설명하거나 임상 내용과 연계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으며 脾의 기능에 대한 기초 이론은 『黃帝內經研究大成』을 따르는 정도에 머물렀다. 『黃帝內經研究大成』의 脾 기능과 관련된 내용은 대략적으로 잘 정리되었으나 몇몇 부분에서는 『黃帝內經』의 내용이 아닌 후대의 醫論에 맞춰 논의를 전개한 부분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黃帝內經』의 經文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당시에 생각한 脾의 기능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먼저 각 篇들과 문장들을 분석하고 분류하였으며, 이후에 『黃帝內經研究大成』의 설명과 비교고찰을 하였다.

II. 本 論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먼저 『素問』과 『靈樞』의 모든 篇에서 ‘脾’, ‘中焦’, ‘中氣’, ‘太陰’으로 검색 가능한 모든 문장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脾의 기능과 관련된 것을 선별하고 분류한 후,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였다. 직접적으로 脾臟의 기능을 설명하거나 유추해 낼 수 있는 문장들을 다른 經文과 諸家의 주석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脾臟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水穀之氣의 생산과 분배 기능이며, 둘째는 氣機의 조절 기능이다. 전자는 다시 생산에 중점이 있는 것과 분배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분류했다. 생산과 분배는 인체에 필요한 물질을 만들고 필요로 하는 곳에 공급하는 기능을 말한다. 조절은 氣의 흐름을 조절하고 균형을 맞춰주는 기능을 말한다.

1. 水穀之氣의 생산과 분배 기능

2004. 34(1). pp.20-21.

10) 劉黎明. 『內經』脾臟象理論發生學研究. 遼寧中醫學院碩士論文. 2001.

11) 王宏利. 『黃帝內經』脾臟象術語文化要素研究. 遼寧中醫學院博士論文. 2014.

- 1) 脾의 해부학적 실체가 확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기능을 대응시키거나 비교하여 오해와 혼란이 심해지는 원인이 되었다.
- 2) 蘇建華. 『內經』脾陰思想探析. 世界中醫藥. 2009. 4(5). pp.283-284.
- 3) 高小玲 外 3人. 對『黃帝內經』“脾不主時”的認識. 中國中醫藥現代遠程教育. 2013. 11(13). pp.1-2.
- 4) 李銀華 外 2人. 『內經』“心生血, 血生脾”理論及應用探討. 中醫藥信息. 2010. 27(2). pp.3-5.
- 5) 陳麗斌. 『內經』中脾與胃的關係. 福建中醫藥大學學報. 2013. 23(3). pp.71-72.
- 6) 潘光明 外 2人. 『黃帝內經』心脾相關理論淺析. 新中醫. 2007. 39(11). pp.94-95.
- 7) 湯川安. 『內經』之肝脾同治論. 中醫文獻雜誌. 2011. 3期. pp.25-28.
- 8) 郝軍, 郝紀容. 『內經』脾胃藏象辨證論治思想的臨床意義淺析. 中醫研究. 2011. 24(11). pp.5-7.
- 9) 李淑萍, 李玲. 『內經』脾病證候規律初探. 遼寧中醫雜誌.

인간은 생명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水穀을 섭취한다. 水穀을 인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화를 통해 水穀之氣를 생산하는 과정과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곳에 공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水穀之氣¹²⁾를 만들어 내는 것을 ‘생산’으로, 공급하는 것을 ‘분배’로 정의하였다.

1) 생산 기능

脾胃者, 倉廩之官, 五味出焉. (素問·靈蘭秘典論)¹³⁾

脾胃大腸小腸三焦膀胱者, 倉廩之本, 營之居也, 名曰器, 能化糟粕, 轉味而入出者也. 其華在脣四白, 其充在肌, 其味甘, 其色黃, 此至陰之類, 通於土氣. (素問·六節藏象論)¹⁴⁾

故背爲陽, 陽中之陽, 心也. 背爲陽, 陽中之陰, 肺也. 腹爲陰, 陰中之陰, 腎也. 腹爲陰, 陰中之陽, 肝也. 腹爲陰, 陰中之至陰, 脾也. 此皆陰陽表裏, 內外雌雄, 相輸應也, 故以應天之陰陽也.(素問·金匱真言論)¹⁵⁾

인체에서 水穀之氣를 생산하는 주체는脾胃이다. 『靈蘭秘典論』은 이러한脾胃의 기능을 상징적으로 ‘倉廩之官’이라 표현하였다. 王冰은 이에 대해 “五穀

을 받아들이는 것을 倉廩之官이라 하고, 이로써 四傍을 營養하므로 五味가 出한다고 한다.”라고 하였다.¹⁶⁾ 즉, 倉廩之官은脾胃가 五穀으로부터 五味¹⁷⁾를 생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¹⁸⁾ 倉과 廩을 나누어 보면, 倉은 정제되지 않은 곡식을 담은 창고이며 廩은 정제된 곡식을 담은 창고이다.¹⁹⁾ 따라서 廩은 소화과정을 포함한 개념으로 추론할 수 있다. 『六節藏象論』에는 이와 유사한 의미로 ‘倉廩之本’과 ‘器’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王冰²⁰⁾과 張介賓²¹⁾은 이것이 水穀을 받아들이는 기능을 설명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반면 高士宗은 ‘倉廩之本’은脾胃를 가리키고 ‘器’는胃, 大腸, 小腸, 三焦, 膀胱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으며, 脾는 소화하는 기능, 나머지 五腑는 有形의 物을 저장하는 것으로 해석했다.²²⁾

『六節藏象論』과 『金匱真言論』에서는脾胃를 ‘至陰’으로 표현하였다.²³⁾ 至陰의 의미는 공간과 기능으로

12) 본고에서는胃가 水穀을 통해 생산해 내는 것을 통칭하여 ‘水穀之氣’라 하였다. 『素問·太陰陽明論』을 살펴보면, 四肢가胃로부터 받는 것을 ‘水穀氣’라 표현했다. (“岐伯曰 四肢皆稟氣於胃, 而不得至經, 必因於脾, 乃得稟也. 今脾病不能爲胃行其津液, 四肢不得稟水穀氣…… 藏府各因其經而受氣於陽明, 故爲胃行其津液. 四肢不得稟水穀氣, 日以益衰, 陰道不利, 筋骨肌肉, 無氣以生, 故不用焉.”) 한편, 『靈樞·平人絕穀』에서는 水穀이胃로 들어가서 변하여 五臟을 안정시키고, 血脈으로 들어가 精神이 거처하게 하는 것을 ‘水穀之精氣’라 했다. (“平人則不然, 胃滿則腸虛, 腸滿則胃虛, 更虛更滿, 故氣得上下, 五臟安定, 血脈和利, 精神乃居, 故神者, 水穀之精氣也.”) 그러나 『素問·痺論』의 경우 ‘水穀之精氣’는營氣에 국한된 표현이며 ‘水穀之悍氣(衛氣)’의 상대적 표현으로 쓰였다. (“岐伯曰 榮者水穀之精氣也, 和調於五藏, 灑陳於六府, 乃能入於脈也, 故循脈上下, 貫五藏絡六府也. 衛者水穀之悍氣也, 其脈慄疾滑利, 不能入於脈也……”) 때문에 水穀에 기원하여 생산되고, 물질적 성격인津液, 營血 등에 담겨 전신으로 공급되는 것을 ‘水穀之氣’라 통칭하였다.

1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34.

1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p.36-37.

1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20.

16) “包容五穀, 是爲倉廩之官, 營養四傍, 故雲五味出焉.”(王冰選注. 黃帝內經素問. 瀋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p17.)

17) 여기서 五味는 맛이 아니라, 인체의 필요에 따라 五穀을 바탕으로 생산한 것을 의미한다.

18) 張介賓은 倉廩之官의 기능을脾胃의 運化와胃의 受納으로 구분해 설명하였다.(張介賓. 類經.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15. “脾胃運化, 胃司受納, 通主水穀, 故皆爲倉廩之官.”) 그러나 『靈蘭秘典論』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大小腸과 같은 다른 腑들은 각기 官名을 붙여 설명한 반면脾胃는脾胃와 함께 倉廩之官이라 통칭하였다. 따라서脾胃가 매우 밀접한 관계이며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나누지 않은 경우라 판단할 수 있다.

19) “倉은 곡식 중에서 나락같이 아직 정제되지 않은 것을 저장하는 창고이며, 廩은 쌀과 같이 정제된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이다……즉脾胃는 제정을 담당하는 기관처럼 인체를 영양하는 음식물을 받아들여 저장하고人體에 필요한 營養物을 공급하는 곳이라는 뜻이다.”(樸贊國. 懸吐黃帝內經素問注釋. 경기도 과주. 집문당. 2005. p.180.)

20) “皆可受盛轉運不息, 故爲倉廩之本, 名曰器也.”(王冰選注. 黃帝內經素問. 瀋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p.20.)

21) “此六者皆主盛受水穀, 故同稱倉廩之本, 營者水穀之精氣也. 水穀貯於六府, 故爲營之所居而皆名曰器.”(張介賓. 類經.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16.)

22) 經文을 “脾者, 倉廩之本, 營之居也…… 胃大腸小腸三焦膀胱, 名曰器, 能化糟粕, 轉味而入出者也.”로 나누었고, 주석에 “舊本混入下段, 今改正…… 故脾者, 倉廩之本, 消化水穀, 穀消則脈道內行…… 形藏四胃大腸小腸膀胱也, 四者皆藏有形之物, 故名曰器, 又言三焦者, 腸胃膀胱, 皆三焦之所主也.”라 하였다. (高士宗. 黃帝素問直解.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2. pp.80-81.)

나누어 볼 수 있다. ‘至’는 ‘至極’, ‘極致’를 의미하는 데²⁴⁾ 공간적으로는 ‘가장 낮은 곳’²⁵⁾, 혹은 ‘가장 깊은 곳’²⁶⁾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능적으로는 後天之本으로서 전신을 영양할 수 있도록 水穀之氣를 생산해내는 역할로 이해할 수 있다.²⁷⁾ 『金匱真言論』에서는 腹背로 陰陽을 분류하여 공간적인 의미로 至陰을 배속하였고, 『六節藏象論』에서는 脾와 다섯 개 腑를 至陰의 類라고 하였는데 水穀之氣를 공급하는 기능적 의미를 나타낸다. ‘깊다’, 혹은 ‘낮다’의 공간적 속성은 기능과 서로 무관하지 않다. 脾胃에서 생산하는 水穀之氣가 四臟과 四肢가 활동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太陰根於隱白，結於太倉…… 太陰爲開，厥陰爲闔，少陰爲樞。故開折則倉廩無所輸膈洞，膈洞者，取之太陰，視有餘不足，故開折者，氣不足而生病也。闔折卽氣絕而喜悲，悲者，取之厥陰，視有餘不足。(靈樞·根結)²⁸⁾

이 단락에서 太陰은 隱白에 뿌리를 둔다고 했으므로 足太陰을 말한다. 太陰이 손상되면 倉廩이 轉輸할 바가 없으므로 膈洞²⁹⁾한다고 하였다. 倉廩³⁰⁾

은 水穀之氣의 생산을 비유한 표현이며, 轉輸는 생산물을 인체 각처에 공급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倉廩이 轉輸할 바가 없다는 것은 생산이 안 되어 분배할 것이 없다는 뜻이다. 이는 脾가 水穀之氣의 생산을 담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분배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암시한다.

天氣通於肺，地氣通於噓，風氣通於肝，雷氣通於心，穀氣通於脾，雨氣通於腎。六經爲川，腸胃爲海，九竅爲水注之氣。(素問·陰陽應象大論)³¹⁾

위 문장에서는 인체의 陰陽變化를 天地에 대비해 설명하였다. 이 중 脾臟에 통하는 穀氣는 山穀에서 피어오르는 濕氣를 말한다.³²⁾ 山穀은 山과 골짜기의 의미를 포괄하는데 山은 土를 의미하고 골짜기는 ‘깊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至陰과 유사한 의미가 있다. 濕氣가 피어오른다는 것은 水穀之氣를 생산해내는 것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³³⁾

五藏常內關於上七竅也，故肺氣通於鼻，肺和則鼻能知臭香矣。心氣通於舌，心和則舌能知五味矣。肝氣通於目，肝和則目能辨五色矣。脾氣通於口，脾和則口能

23) 至陰은 『內經』에서 총 24차례 보이는데, 穴位나 長夏를 가리키기도 하고 臟腑 중에 脾를 가리키는 경우와 腎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

24) “其‘至陰’의含義甚爲原始，有‘極致’，‘至極’之義。”(王安利. 『黃帝內經』脾藏象術語文化要素研究. 遼寧中醫大學院博士論文. 2014. p.49.)

25) 張介賓은 脾土가 地의 象이라 하였는데(張介賓. 類經.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13. “脾屬人之土，其體象地，故曰牝藏，爲陰中之至陰也.”) 공간적 의미로서 地는 가장 낮은 곳이다.

26) 王安利는 고대 문헌들에 쓰인 용어를 분석하여 ‘陰中之至陰’을 인체 下部의 가장 깊은 곳으로 판단하였다.(王安利. 『黃帝內經』脾藏象術語文化要素研究. 遼寧中醫大學院博士論文. 2014. p.53. “脾在藏府陰陽屬性上應屬陰，是以其空間方位所確定的，而脾爲‘陰中之至陰’也指在人形體之中的空間方位上，脾居於人體下部最內‘窈冥’之處，故爲陰中之至陰.”)

27) “여기서의 至는 根源을 뜻하니，여기서 脾를 至陰이라고 한 것은 脾가 水穀之氣를 받아 人體의 生命活動을 영위하는 後天의 근원이기 때문이다.”(樸贊國. 懸壺黃帝內經素問注釋. 경기도 파주. 집문당. 2005. p.72.)

2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50.

29) 膈洞의 뜻에 대한 注家들의 설명은 분분하다. 張介賓은 막혀서 토하는 것으로 보았고(張介賓. 類經.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132. “膈，隔塞也。洞，如邪氣藏府病形篇曰，洞者，食不化，下噓選出也.”)， 章虛穀은 洞泄하는 것으로 보았고(章虛穀. 靈素節注類編. 浙江.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p.77. “膈洞者，膈中乏氣而腸胃無約束，則傳導失司而洞泄之病.”)， 張志聰은 위로는 막히고 아래로는 滲泄하는 것으로 보았다.(張志聰. 黃帝內經靈樞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8. p.47. “膈者，上不開而不受納，洞者，下關折而滲泄也.”)

30) 倉廩은 곡식을 담아두는 곳이므로 일반적으로 闔에 해당한다. 그런데 본문 중에 闔이 손상된 증상은 정신증상(喜悲)에 가깝다. 따라서 闔은 神을 담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25.

32) “脾屬土而主濕，故山穀蒸濕之氣通於脾濕”(章虛穀. 靈素節注類編. 浙江.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p.5)

33) “산골짜기에서 나온 물이나 濕氣가 草木을 滋養하듯이，脾에서 水穀之氣를 潤화시켜 身體를 滋養하여 肝心脾腎을 營養하므로，穀氣가 脾에 通한다고 하였다.”(樸贊國. 懸壺黃帝內經素問注釋. 경기도 파주. 집문당. 2005. p.133.)

知五穀矣. 腎氣通於耳, 腎和則耳能聞五音矣. (靈樞·脈度)³⁴⁾

「脈道」에서는 七竅의 감각기능에 대해 말했다. 肺心肝腎이 후각, 미각, 시각, 청각 능력을 주관하는 것에 비해 脾에 대해서는 五穀을 아는 감각을 주관한다고 하였다. 楊上善은 이에 대해 “곡식에는 五味가 있으니 혀가 이미 그것을 알고, 五穀의 구별은 입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보리를 먹은 경우에 콩이라 말하지 않는다.”³⁵⁾라고 하였다. ‘知五味’는 맛을 구별하는 것이고, ‘知五穀’은 五穀을 구별할 수 있다는 말이다. 五穀은 主食으로 인체에 가장 필수적인 음식이다. 『素問·藏氣法時論』에 따르면 인체의 精과 氣를 기르는 것은 五穀이다.³⁶⁾ 그러한 五穀을 구별하는 감각이 脾에 의존하므로 脾의 기능이 인체의 精氣를 기르는 것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脾風之狀, 多汗惡風, 身體怠惰, 四支不欲動, 色薄微黃, 不嗜食, 診在鼻上, 其色黃. (素問·風論)³⁷⁾

刺皮, 無傷肉, 肉傷則內動脾, 脾動則七十二日, 四季之月, 病腹脹煩, 不嗜食. (素問·刺要論)³⁸⁾

「風論」과 「刺要論」에서는 각각 脾病에 ‘不嗜食’을 언급하였다. ‘不嗜食’은 식욕부진을 의미한다. 食慾은 음식을 먹어서 몸에 필요한 것을 생산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脾病에 식욕부진이 나타난다는 것은 몸에 필요한 것을 생산하는 기능이 脾와 관련됨을 의미한다.

脾氣虛則夢飲食不足, 得其時則夢築垣蓋屋. (素問·

方盛衰論篇)³⁹⁾

위 문장에서는 脾氣가 虛할 때와 脾가 주관하는 時를 얻었을 때⁴⁰⁾ 꾸는 꿈을 말하였다. 이 중 脾氣 虛에는 음식이 부족한 꿈을 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張介賓은 “곳간이 비었으므로 음식을 얻고 싶어 한다.”⁴¹⁾라고 하였다. ‘곳간이 비었다’는 것은 水穀之氣가 부족한 精氣를 의미하며, ‘음식을 얻고 싶어 한다’는 것은 食慾을 의미한다. 王冰은 “脾가 水穀을 들이므로 음식이 부족한 꿈을 꾸는 것이다.”⁴²⁾라고 하였다. ‘水穀을 들이는 것(納水穀)’은 일반적으로 胃의 기능인데, 脾를 주어로 말한 것은 脾가 水穀을 들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主體라는 의미를 함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脈度」의 문장과 더불어 볼 때, 脾가 水穀之氣의 생산에 관한 감각과 욕구의 주체임을 알 수 있다.

2) 분배 기능

이 단락에서는 脾의 기능이 水穀之氣의 분배에 해당하는 경우를 기술하였다. 실상 생산과 분배는 분절되지 않는 일련의 과정인데,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나누어 설명한 것이다. 이 경우 음식을 받아들이는 것과 소화는 胃, 인체 각 부분에 분배하는 것은 脾의 기능으로 인식했다.

四支皆稟氣於胃, 而不得至經, 必因於脾, 乃得稟也. …… 脾藏者, 常著胃土之精也. (素問·太陰陽明論)⁴³⁾

歧伯曰, 脾脈者土也, 孤藏以灌四傍者也. (素問·玉機眞藏論)⁴⁴⁾

3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15.

35) “穀有五味, 舌已知之, 五穀之別, 口知之也, 故食麥之者, 不言菽也.”(楊上善 選注. 錢超塵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101.)

36) “五穀爲養, 五果爲助, 五畜爲益, 五菜爲充. 氣味合而服之, 以補精益氣也.”(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89.)

3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58.

3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88.

3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321.

40) “得其時, 謂辰戌醜未之月, 各旺十八日.”(王冰 選注. 黃帝內經素問. 瀋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p163.)

41) “倉廩空虛, 故欲得飲食”(張介賓. 類經.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277.)

42) “脾納水穀, 故夢飲食不足.”(王冰 選注. 黃帝內經素問. 瀋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p163.)

4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12.

4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73.

飲入於胃，遊溢精氣，上輸於脾。脾氣散精，上歸於肺，通調水道，下輸膀胱。水精四布，五經並行，合於四時五藏，陰陽揆度以爲常也。(素問·經脈別論)⁴⁵⁾

歧伯曰 酒入於胃，則絡脈滿而經脈虛。脾主爲胃行其津液者也……(素問·厥論)⁴⁶⁾

肝生於左，肺藏於右，心部於表，腎治於裏，脾爲之使，胃爲之市。(素問·刺禁論)⁴⁷⁾

「太陰陽明論」에서는 四肢가 필요한 氣를 胃로부터 받지만 반드시 脾의 기능에 의함을 명시하였다. 즉 氣를 생산하는 胃와 ‘드러내는’(혹은 ‘입히는’) 脾의 기능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는 四肢가 氣를 받는 과정에서 脾의 분배 기능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玉機眞藏論」에서는 ‘四傍에 물을 댄다(灌)’고 표현하여 脾의 분배 기능을 명시하였다. 孤藏은 특정하여 主하는 時가 없기 때문에 ‘외롭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 보는 해설⁴⁸⁾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외롭다’는 것은 그 하는 일에 비해 勞苦가 드러나지 않음을 말하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⁴⁹⁾

「經脈別論」에서는 飲水가 흡수되고 순환하는 과정을 설명했는데, 脾가 水精을 散布한다고 하였다. 「厥論」에서는 脾臟이 津液을 運行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刺禁論」에서는 脾를 ‘使’, 胃를 ‘市’라 하여 기능을 대비하였다. ‘市’는 ‘모임’을 의미하므로 水穀에서 만들어진 氣가 모이는 공간을 가리킨다. ‘使’는 ‘부리다’, ‘시키다’는 뜻으로 대신 전달하는 기능을 표현하였다.⁵¹⁾ 모두 脾의 기능을 분배에 두고

있다.

今脾病不能爲胃行其津液，四支不得稟水穀氣，氣日以衰，脈道不利，筋骨肌肉，皆無氣以生，故不用焉。(素問·太陰陽明論)⁵²⁾

위 문장에서는 脾病에 津液의 운행 기능不全으로 인해 穀氣를 공급받지 못해 발생하는 증상을 설명하였다. 四肢의 筋骨肌肉이 모두 脾臟의 분배기능에 의존해 氣를 공급받음을 알 수 있다.

平脾脈來，和柔相離，如雞踐地，曰脾平，長夏以胃氣爲本，病脾脈來，實而盈數，如雞舉足，曰脾病。死脾脈來，銳堅如鳥之喙，如鳥之距，如屋之漏，如水之流，曰脾死。(素問·平人氣象論)⁵³⁾

歧伯曰 其來如水之流者，此謂太過，病在外，如鳥之喙者，此謂不及，病在中，……太過則令人四支不舉，其不及則令人九竅不通，名曰重強。(素問·玉機眞藏論)⁵⁴⁾

太陰有餘病肉痺寒中，不足病脾痺。(素問·四時刺逆從論)⁵⁵⁾

위 문장들은 脾脈을 虛實을 설명하였다. 「平人氣象論」에 따르면 脾의 平脈은 ‘和柔相離’한 것이다. ‘和柔’는 부드럽게 적셔주는 성질을 말하고, ‘相離’는 脾의 공급이 알맞게 나누어지는 작용을 나타낸다.⁵⁶⁾ 새의 부리처럼 뾰뾰한 것은 ‘和柔’하지 못한 脈이고,

4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86.

4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69.

4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90.

48) “脾屬土而位居中央，各旺四季月十八日，不得獨主於時，故謂孤藏。”(張隱庵. 黃帝內經素問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4. p.179.)

49) 같은 편에 “歧伯曰善者不可得見，惡者可見。”이라 하였는데 병이 없을 때에는 하는 일이 드러나지 않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드러난다는 것을 말한다.

50) “水飲入胃，則其氣化精微，必先輸運於脾，是謂中焦如漚也。脾乃散氣，上如雲霧，而歸於肺，是謂上焦如霧也。”(張介賓. 類經.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27.)

51) “脾가 胃에 모임 氣를 다른 藏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

고, 胃는 오장에서 사용될 氣를 모아 두는 일을 함을 말한 것이니, 이는 氣의 생산과 운반을 말한 것이다.”(樸贊國. 懸吐黃帝內經素問注釋. 경기도 파주. 집문당. 2005. p.856.)

5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12.

5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66.

5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73.

5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229.

56) “和柔相離，本中土和柔之氣，而離散於四傍也。如鷄踐地，鷄足四爪踐地，猶脾土和柔而濡潤也。”(高士宗. 黃帝素問直解.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2. p.143.)

물이 흐르듯 한 것은 ‘相離’하지 못한 脈이다.

「玉機眞藏論」에 따르면 뻗뻗한 것은 不及이며 病이 中에 있고 증상은 九竅不通이다. 반대로 물 흐르듯 한 것은 太過脈이며 病이 外에 있고 증상은 四肢不舉이다. 九竅는 五臟의 상태를 반영하므로 九竅不通은 五臟病에 속한다.⁵⁷⁾ 五臟은 脾로부터 水穀之氣를 공급받아야 안정된다.⁵⁸⁾ 즉 不及은 脾가 五臟에 水穀之氣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것이고⁵⁹⁾, ‘病在中’은 五臟病을 의미한다.⁶⁰⁾ 太過脈에 四肢不舉한 원인을 張介賓은 濕을 이겨내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였고,⁶¹⁾ 高士宗은 濕氣가 침입하여 四肢에 머무는 것으로 인식하였다.⁶²⁾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太過는 濕邪의 太過를 의미한다. 濕邪가 끼어 水穀之氣가 四末로 분배되는 과정을 방해하므로 四肢를 들기 어려운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즉 ‘病在外’는 四肢의 病을 의미한 것으로 五臟病의 상대적 표현이다. 太過不及의 脈證을 종합해보면 太過는 濕邪가 분배를 저해하여 四肢가 영양 받지 못한 것이고, 不及은 脾의 공급 부족으로 五臟이 불안한 것이다.

「四時刺逆從論」에는 有餘한 것은 肉痺가 되고 부족한 것은 脾痺가 된다고 하였다. 肉痺는 外에 해당하며 脾痺는 中에 해당하므로 「玉機眞藏論」의 논법과 같다.

太陰藏搏者，用心省眞，五脈氣少，胃氣不平，三陰

57) “五藏常內閱於上七竅也，故肺氣通於鼻，肺和則鼻能知臭香矣。心氣通於舌，心和則舌能知五味矣。肝氣通於目，肝和則目能辨五色矣。”(洪元植，精校黃帝內經靈樞，서울，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1985，p.115.)

58) “脾藏營，營舍意，脾氣虛則四肢不用，五藏不安，實則腹脹，經澁不利。”(洪元植，精校黃帝內經靈樞，서울，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1985，p.69.)

59) “脾之孤藏，以灌四傍，今病則五藏不和，故九竅不通。”(王冰選注，黃帝內經素問，瀋陽，遼寧科學技術出版社，1997，p.35.)

60) 不及의 경우 水穀之氣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므로 五臟뿐 아니라 四肢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病在中’이라 한 것은 病이 五臟에 미쳤음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形體病에 비해 五臟病이 더 근본적이고 위중한 병이기 때문이다.

61) “脾土太過，病在外，故令人四支不舉，而脾主四支而濕勝之也。”(張介賓，類經，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1997，p.61.)

62) “脾脈太過，濕氣浸淫，流於四末，則令人四支不舉。”(高士宗，黃帝素問直解，北京，科學技術文獻出版社，1982，p.148.)

也，宜治其下俞，補陽寫陰。(素問·經脈別論)⁶³⁾

위 문장에서는 太陰의 脈象을 말했다. “太陰脈이 왕성하게 박동하면 세밀히 살펴야 하며，五脈의 氣가 적어지고 胃氣가 不平하다라”고 하였다. 經文 中에 手足을 나누지 않았으나 注家들은 대부분 足太陰脾脈으로 보았다.⁶⁴⁾ ‘五脈氣少’는 太陰이 五脈에 氣를 공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胃氣不平’은 四臟에 드러나는 胃氣가 不平한 것일 수도 있고，病이 傳하여 胃가 傷한 것일 수도 있다. 전자를 의미한다면 ‘五脈氣少’와 같은 분배 기능의 문제로 볼 수 있다.

帝曰 熱厥何如而然也. 岐伯曰 酒入於胃，則絡脈滿而經脈虛. 脾主爲胃行其津液者也，陰氣虛則陽氣入，陽氣入則胃不和，胃不和則精氣竭，精氣竭則不營其四支也. 此人必數醉若飽以入房，氣聚於脾中不得散，酒氣與穀氣相薄，熱盛於中，故熱偏於身，內熱而溺赤也。(素問·厥論)⁶⁵⁾

有所墮墜，惡血留內，有所大怒，氣上而不下，積於脅下，則傷肝. 有所擊仆，若醉入房，汗出當風，則傷脾. 有所用力舉重，若入房過度，汗出浴水，則傷腎。(靈樞·邪氣藏府病形)⁶⁶⁾

「厥論」에서는 음주로 인하여 熱厥이 발생하는 기전을 설명하였다. 脾臟이 津液을 운행하며，脾의 운행이 부진함에 따라 胃가 不和하게 되고 四肢가 영양 받지 못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醉飽入房은 脾의 분배작용을 악화시켜 熱氣를 가중시킨다. 「邪氣藏府病形」에서는 擊仆⁶⁷⁾한 바가 있는데 醉入房하거

63) 洪元植，精校黃帝內經素問，서울，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1985，p.86.

64) “三陰，太陰脾之脈也。”(王冰選注，黃帝內經素問，瀋陽，遼寧科學技術出版社，1997，p.41.)， “太陰者，足太陰脾經也。”(張介賓，類經，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1997，p.66.)

65) 洪元植，精校黃帝內經素問，서울，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1985，p.169.

66) 洪元植，精校黃帝內經靈樞，서울，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1985，p.36.

67) 張介賓은 肌肉을 상한 것이라 하였는데(張介賓，類經，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1997，p.177. “脾主肌肉，飲食擊仆者，傷其肌肉.”) 의미가 분명치 않다. 字義로는 물리적 外傷이나 卒中으로 볼 수 있는데，앞뒤 문장을 볼 때 脾氣

나 汗出當風하면 脾를 상한다고 하였다. 「厥論」를 참고하면 醉入房이 脾中に 氣가 흠어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素問·五臟生成』을 참고하면 汗出當風으로 腹中에 積氣가 생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⁶⁸⁾ 따라서 ‘傷脾’는 脾臟의 분배기능이 손상된 것을 의미한다.

帝曰 有病口甘者, 病名爲何? 何以得之? 岐伯曰 此五氣之溢也, 名曰脾瘴. 夫五味入口, 藏於胃, 脾爲之行其精氣, 津液在脾, 故令人口甘也, 此肥美之所發也. 此人必數食甘美而多肥也. (素問·奇病論)⁶⁹⁾

熱病噎乾多飲, 善驚, 臥不能起, 取之膚肉, 以第六鍼, 五十九. 目眇青, 索肉於脾, 不得索之木, 木者肝也. (靈樞·熱病)⁷⁰⁾

「奇病論」에서는 脾가 水穀之氣를 분배하지 못하고 쌓이므로 입이 달게 느껴지는 병에 대해 설명하였다. 「熱病」에서는 噎乾多飲, 善驚, 臥不能起에 肉에 자침하며, 脾를 치료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했다. 章虛穀은 이를 津液이 수포되지 못해 발생한 병으로 해석했다.⁷¹⁾

脾瘴者, 四肢解墮, 發咳嘔汁, 上爲大塞. (素問·痺論)⁷²⁾

厥心痛, 痛如以錐鍼刺其心, 心痛甚者, 脾心痛也, 取之然穀太谿. (素問·厥病)⁷³⁾

를 상하는 어떤 행위나 外證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68) “五藏之象, 可以類推, 五藏相音, 可以意識…… 黃脈之至也, 大而虛, 有積氣在腹中, 有厥氣, 名曰厥疝, 女子同法, 得之疾使四支汗出當風.”(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40.)

6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76.

7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38.

71) “此熱邪傷脾, 津液不能上輸, 而噎乾多飲, 脾病則肝木乘之, 故善驚而目眇青, 臥不能起者, 脾主肉, 脾傷則身重也.”(樟虛穀. 靈素節注類編. 浙江.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p.313.)

7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36.

7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62.

「痺論」에서는 脾痺에 四肢가 늘어지는 것과 막혀서 上逆하는 증상을 설명하였다. 이는 脾가 四肢로 津液을 분배하지 못하므로 막혀서 생기는 증상으로 볼 수 있다.⁷⁴⁾ 「厥病」에서는 송곳으로 찌르듯이 기가 衝逆하는 증상을 脾心痛이라 하였다. 이 또한 脾가 펼쳐지지 못해서 逆하는 증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⁷⁵⁾

故飲食飽甚, 汗出於胃, 驚而奪精, 汗出於心, 持重遠行, 汗出於腎, 疾走恐懼, 汗出於肝, 搖體勞苦, 汗出於脾. (素問·經脈別論)⁷⁶⁾

과도한 활동이 어느 臟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였는데, 五藏과 함께 胃를 언급하였다. 脾胃의 증상을 살펴보면, 과식하면 胃에 痰이 나고, 과로하면 脾에 痰이 난다. 음식을 받아들이는 기능은 胃에 속하므로 과식은 위에 부담이 되는 반면 脾가 四肢에 水穀之氣를 공급하므로 四肢의 用力이 과도하면 脾에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⁷⁷⁾

脾欬之狀, 欬則右脇下痛, 陰陰引肩背, 甚則不可以動, 動則欬劇……脾欬不已, 則胃受之, 胃欬之狀, 欬而嘔, 嘔甚則長蟲出. (素問·欬論)⁷⁸⁾

脾風之狀, 多汗惡風, 身體怠惰, 四支不欲動, 色薄微黃, 不嗜食, 診在鼻上, 其色黃…… 胃風之狀, 頸多汗, 惡風, 食飲不下, 鬲塞不通, 腹善滿, 失衣則腹脹, 食寒則泄; 診形瘦而腹大. (素問·風論)⁷⁹⁾

74) “土灌四旁, 痺則土氣不灌, 氣惟上逆, 故發咳. 入胃之飲, 借脾氣以散精, 痺則不能散精, 故嘔汁. 脾氣不能轉輸, 則肺不能通調, 故上爲大塞.”(高士宗. 黃帝素問直解.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2. p.312.)

75) “脾之支脈, 注於心中, 若脾不能運而逆氣攻心, 其痛必甚有如錐刺者, 是謂脾心痛也.”(張介賓. 類經.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340.)

7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86.

77) “搖體勞苦, 謂動作施力, 非疾走遠行也, 然動作用力, 則穀精四布, 脾化水穀, 故汗出於脾也.”(王水 選注. 黃帝內經素問. 瀋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p.40.)

7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42.

脾瘕者, 令人寒, 腹中痛. 熱則腸中鳴, 鳴已汗出, 刺足太陰. …… 胃瘕者, 令人且病也, 善飢而不能食, 食而支滿腹大, 刺足陽明太陰橫脈出血. (素問·刺瘕論)⁸⁰⁾

脾病身痛體重…… 胃病脹滿…… (素問·標本病傳論)⁸¹⁾

脾脹者, 善噦, 四肢煩惋, 體重不能勝衣, 臥不安. …… 胃脹者, 腹滿, 胃脘痛, 鼻聞焦臭, 妨於食, 大便難. (靈樞·脹論)⁸²⁾

위 문장들에서는 특정 病證에 대한 臟腑辨證 내용을 서술하였으며, 五藏證과 함께 胃證을 나누었다. 대략적으로 四肢解惰, 身體重과 같은 말단 증상은 주로 脾病에 속하고 腹脹滿, 食不下, 大便難과 같이 막혀서 내려가지 않는 증상은 胃病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四肢는 동작에 의한 氣의 소비가 가장 많은 곳으로 분배 기능이 不利하면 四肢의 장애를 초래하기 쉽다. 반면 胃는 음식을 들이고 내려 보내는 것이 주된 역할이므로 소화기 증상은 胃病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內經』에서 ‘五藏+胃’로 辨證한 내용은 특정 질병을 대상으로 한 篇들에 주로 많다. 生理를 설명한 부분에 비해 病證과 관련한 설명에서는 脾病과 胃病을 대비해 구분하려 했던 시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앞서 생산 기능을 설명하면서, ‘至陰’에는 가장 낮은 곳, 혹은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하는 공간적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속성으로 말미암아 생산 기능을 표현한다는 점을 말했다. 楊上善은 「金匱眞言論」의 주석에서 “脾는 腹중에 거처하고 至陰의 위치에 있어서 四藏을 돕기 때문에 陰中之陰이라 한다.”⁸³⁾

라 하였다. ‘資’는 경제적 도움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至陰을 四藏에 물질을 공급하는 개념으로 이해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다’라는 至陰의 의미가 분배 기능을 상징한 표현들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使’와 ‘孤藏’은 자신이 나서지 않고 남을 위해 일하는 속성을 표현한 것으로 至陰의 공간적 의미와 유사하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至陰은 脾의 생산 기능 뿐 아니라 분배 기능을 일부 포괄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脾臟의 분배 기능에 대한 여러 문장을 볼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것들과 중복되는 것이 많아 생략하였다.

2. 氣機의 조절 기능

氣機의 조절 기능은 氣의 運行을 조절하고 균형을 맞춰주는 기능을 말한다.

中央生濕, 濕生土, 土生甘, 甘生脾…… 其性靜兼, 其德爲濡, 其用爲化, 其色爲黃, 其化爲盈, 其蟲僕, 其政爲謚…… (素問·五運行大論)⁸⁴⁾

脾土의 생성과 그 類屬에 대해 말하였다. 내용 중에 그 性은 靜兼하며, 用은 化이며, 政이 謚하다고 표현했다. 本性은 靜兼한데, 靜은 安靜함을 말하고 兼은 四氣를 아우름(并)을 뜻한다.⁸⁵⁾ 作用이 化라 한 것은 四氣의 變化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⁸⁶⁾ 다스림(政)은 謚이니 安靜시키는 것을 말한다.⁸⁷⁾ 종합해보면 脾土는 中央으로서 나머지 四氣의 변화에 참여하여 변화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다스리는

社. 2006. p.53.)

7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58.

8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36.

8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p.230-231.

8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78.

83) “脾居腹中, 至陰之位, 以資四藏, 故謂陰中之陰.”(楊上善選注. 錢超塵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53.)

8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238.

85) “兼, 謂兼寒熱喧涼之氣也. 白虎通曰 脾之爲言并也, 謂四氣并之也.”(王冰 選注. 黃帝內經素問. 瀋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p111.)

86) 王冰 “化, 謂兼諸四化并已, 爲五化, 所謂風化熱化燥化寒化. 周萬物而爲生長化收成收藏也.”(王冰 選注. 黃帝內經素問. 瀋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p111.)

87) “謚, 靜也. 安靜寧謚, 土之政也.”(張介賓. 類經.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21.)

역할을 맡고 있다.

中央生濕, 濕生土, 土生甘, 甘生脾……在味爲甘, 在志爲思. 思傷脾, 怒勝思. (陰陽應象大論)⁸⁸⁾

五精所并, 精氣并於心則喜, 并於肺則悲, 并於肝則憂, 并於脾則畏, 并於腎則恐, 是謂五并, 虛而相并者也. (素問·宣明五氣)⁸⁹⁾

『黃帝內經』에서는 肝腎脾肺腎에 각각 怒喜思悲恐의 감정이 배속하였다. 이 중 怒喜悲恐은 어떤 상황을 맞닥뜨린 순간 일어나는 감정인데 반해, 思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이성적 판단이다. 판단을 통해 결정하는 것은 행동의 방향이다.⁹⁰⁾ 때문에 怒喜悲恐이 일정한 방향으로 氣變化를 일으키는⁹¹⁾ 반면, 思는 정해진 방향성이 없으며 상황에 맞게 방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思하면 氣가 結한다’는 것은 판단을 내리지 못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므로 정체되는 것을 의미한다.⁹²⁾ 비유하자면 上下左右로 말을 옮기는 장기관에서 사람이 판단을 하지 못해 말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판단과 결정이 脾에 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주로 변화가 일어날 때이다. 변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때에 맞는 전환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相異한 기운으로 인해 생기는 부조화이다. 따라서 판단하여 때에 맞게 전환을 시켜주고 부조화를 조정해줄 主宰者

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계절이 봄에서 여름으로 옮겨가면 人氣를 주관하는 臟도 肝에서 心으로 따라서 바뀌어야 한다. 脾는 四季와 四間方에 배속되어 전환되는 것을 돕고 발생한 부조화를 조정하여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앞서 變化에 참여하고 四氣를 아우른다고 한 것은 그것을 판단하고 때에 맞게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宣明五氣』에서는 脾가 虛할 때 精氣가 몰리면 畏하는 감정이 생긴다고 하였다. 畏는 思慮가 심한 것이다.⁹³⁾ 思慮는 상황을 판단하는 것인데 思慮가 심한 것은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때문에 두려움이 발생한다.

四支皆稟氣於胃, 而不得至經, 必因於脾, 乃得稟也.…… 脾藏者, 常著胃土之精也, 土者生萬物而法天地, 故上下至頭足, 不得主時也. (素問·太陰陽明論)⁹⁴⁾

이 문장은 앞서 설명했듯이 脾의 분배 기능을 뜻하는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조절 기능과 긴밀히 연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장 중에 ‘土者生萬物而法天地’는 土의 역할을 말하며, ‘故上下至頭足, 不得主時也.’는 그 결과를 말한다. ‘生萬物’은 물질을 만들어 내는 작용이며, 인체에서는 ‘胃土之精’의 생산을 가리킨다. ‘法天地’에서 ‘法’은 운행의 理致가 있음을 말하며, 그것이 天地를 따른다는 뜻이다. 운행을 주관하는 것은 脾土의 기능이다. 따라서 ‘法天地’는 脾臟이 단순히 胃土之精을 공급하는 수송기관이 아니라 天地가 萬物을 길러내듯 배분할 곳을 판단하는 능동적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일종의 主宰者로서의 역할이며, 脾臟의 조절 기능을 의미한다.

岐伯對曰 正月二月, 天氣始方, 地氣始發, 人氣在肝. 三月四月, 天氣正方, 地氣定發, 人氣在脾. 五月六月, 天氣盛, 地氣高, 人氣在頭. 七月八月, 陰氣始殺,

8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24.

8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92.

90)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陰陽을 결정하고 五行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思慮가 많아지면 행동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데, 陰陽五行을 결정하지 못하므로 결국 脾氣가 증부에 올라 脾가 상한다.” (樸贊國. 懸註黃帝內經素問注釋. 경기도 과주. 집문당. 2005. p.112.)

91) “怒則氣上, 喜則氣緩, 悲則氣消, 恐則氣下, 寒則氣收, 炆則氣泄, 驚則氣亂, 勞則氣耗, 思則氣結.”(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46.)

92) 『素問·學痛論』에서는 “思則心有所存, 神有所歸, 正氣留而不行, 故氣結矣.”(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46.)라 하여 思를 하면 마음을 한 곳에 두게 되므로 氣가 움직이지 않고, 때문에 氣가 結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93) “此言五藏之精氣, 并於所虛之藏也. 陰陽應象大論曰……脾虛而餘藏精氣得以并之, 則爲畏. 夫在志爲思而此曰畏, 以過思則畏勝也.”(馬蒔.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386.)

9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12.

人氣在肺。九月十月，陰氣始冰，地氣始閉，人氣在心。十一月十二月，冰復，地氣合，人氣在腎。(素問·診要經終論)⁹⁵⁾

『診要經終論』의 月別 配屬은 일반적이지 않다. 3, 4월의 人氣를 脾臟에 배속했고 9, 10월에 心을 배속하였다. 9, 10월에 心을 배속한 이유를 王冰은 陽氣를 따라 들어가기 때문이라 하였고⁹⁶⁾, 張介賓은 陽氣가 속(中)에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⁹⁷⁾ 모두 陽氣를 수렴시키고 心陽을 보존하는 해석으로 볼 수 있다. 한편 3, 4월의 人氣는 脾에 배속하였고 天氣가 반듯하고(正方) 地氣가 안정되게 퍼지는(定發) 때로 보았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는 心에 배속되며 陽氣가 크게 확산되는 시기인데 오히려 安定과 正方을 말한 것은 陽氣가 펼쳐질 때 過盛하거나 亂暴하지 않도록 제한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앞서 陽氣의 보존을 중시한 것에 비춰볼 때, 제어를 해야 하는 까닭은 陽氣가 쓸데없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 것이다. 이때 인체의 氣를 주관하는 것은 脾라 하였으므로 脾가 인체의 陽氣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帝曰 脾不主時，何也？岐伯曰 脾者土也，治中央，常以四時長四藏，各十八日寄治，不得獨主於時也。(素問·太陰陽明論)⁹⁸⁾

脾主長夏，足太陰陽明主治，其日戊己，脾苦濕，急食苦以燥之。(素問·藏氣法時論)⁹⁹⁾

위 문장에서 보이듯 脾가 주관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설명이 있다. 하나는 四季節의 사이이고 하나는 봄여름과 가을겨울의 사이인 長夏이다.

9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54.

96) “陰氣始凝，地氣始閉，隨陽而入，故人氣在心。”(王冰 選注. 黃帝內經素問. 瀋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p.27.)

97) “自秋入冬，陰氣始凝，地氣始閉，陽氣在中，故人氣在心。”(張介賓. 類經.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308.)

9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12.

9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88.

長夏로 배속되었을 때 脾臟은 나머지 四臟과 동등한 五行의 구성원으로서의 위상을 가진다. 반면, 四季에 배속되었을 때는 나머지 四臟과 다른 위상이며, 그것들을 조절하는 역할이 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⁰⁰⁾

五脈應象，肝脈絃，心脈鉤，脾脈代，肺脈毛，腎脈石，是謂五藏之脈。(素問·宣明五氣)¹⁰¹⁾

長夏胃微稟弱曰平，弱多胃少曰脾病，但代無胃曰死；稟弱有石曰冬病，弱甚曰今病。藏眞濡於脾，脾藏肌肉之氣也。(素問·平人氣象論)¹⁰²⁾

『宣明五氣』와 『平人氣象論』에서는 脾臟의 脈象을 가리켜 ‘代’라 하였다. 張介賓은 代脈이 和稟하며, 四季에 旺盛하고, 계절에 따라 당시의 脈에 겸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¹⁰³⁾ ‘和稟’과 『平人氣象論』의 ‘稟弱’은 ‘부드러움’을 뜻한다. 부드러운 것은 개성이 강하지 않고 다른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때문에 他者와 공존하기 쉬우며, 다른 것들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 공존하기 쉬우므로 사계절의 脈과 겸할 수 있고, 완충작용이 필요한 四季에 旺盛하다. 代脈의 부드러운 성질은 脾의 속성을 나타내며, 이런 속성으로 인해 脾가 四臟을 포용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太陰藏搏者，用心省眞，五脈氣少，胃氣不平，三陰也，宜治其下俞，補陽寫陰……太陰藏搏，言伏鼓也。

100) “脾土는 五行運動의 중심으로 四臟의 운동변화를 주관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脾를 제외한 나머지 四臟은 각각 四時에 귀속되어 四時의 변화에 따라 왕성하고 쇠약한 차이를 두는데 脾는 四時에 귀속되지 않으면서 나머지 四臟의 운동변화를 조절하기 때문에 四臟을 거느린다고 하였다.”(樸贊國. 懸吐黃帝內經素問注釋. 경기도 과주. 집문당. 2005. p.558.)

10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92.

10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35.

103) “代，更代也。脾脈和稟，分王四季，如春當和稟而兼絃，夏當和稟而兼鉤，秋當和稟而兼毛，冬當和稟而兼石，隨時相代，故曰代，此非中止之謂，詳按在脈色類四。”(張介賓. 類經.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213.)

(素問·經脈別論)¹⁰⁴⁾

三陰者，六經之所主也，交於太陰，伏鼓不浮，上空志心。(素問·陰陽類論)¹⁰⁵⁾

「經脈別論」에서 ‘用心省眞’은 脾脈이 자세히 살피는 것을 의미한다.¹⁰⁶⁾ ‘伏鼓’는「陰陽類論」에서 ‘不浮’라 한 것을 볼 때 뜨지 않는 맥을 말한다. 이를 통해 太陰의 脈은 깊숙한 곳에 있으며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속성은 앞서 생산과 분배 기능에서 언급한 至陰이나 孤藏과 비슷하다. 「陰陽類論」에서는 “三陰은 六經을 주관한다.”라고 하여 太陰이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종합해보면 太陰은 전체를 주관하지만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¹⁰⁷⁾

III. 考 察

앞서 『黃帝內經』의 저술시대에 바라본 脾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 관련 문장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脾藏의 기능은 水穀之氣의 생산 및 분배에 관한 기능과 인체 氣機를 조절하는 기능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었다. 생산과 분배에 있어서는 생산에 중점을 둔 내용과 분배에 중점을 둔 내용이 있었고 두 가지를 포괄하는 경우도 있었다.

1. 기존 연구와의 비교

1) 『黃帝內經研究大成』

이 단락에서는 본문에서 분류한 내용을 기존 연구와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黃帝內經』의 藏象理論

에 대한 연구는 최근까지도 꾸준히 진행되었으나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룬 최근 자료는 1999년에 출판된 『黃帝內經研究大成』¹⁰⁸⁾이다. 이후의 문헌 연구들은 특정 篇이나 구절에 한정된 것이 다수이며, 문헌 자체보다는 임상적으로 활용하여 보고하거나 문자학 등의 여타 분야와 연계하여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研究大成』의 藏象理論 부분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黃帝內經研究大成·黃帝內經理論研究·藏象研究·脾與胃』¹⁰⁹⁾에서는 脾胃의 기능을 총 9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목차를 살펴보면, 胃爲五臟六腑之海, 脾主升清, 胃主降濁, 胃主受納腐熟, 脾爲胃行其津液, 脾屬至陰爲五臟之使, 脾土與時令의 關係, 脾胃與神志의 關係, 四肢者諸陽之本也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1) 胃는 五臟六腑의 海가 된다.

‘胃者五臟之本’, ‘胃者六腑之海’, ‘胃者收穀氣血之海’와 같은 구절을 대표로 삼아 水穀之氣의 생산을 설명하였다. 진단, 치료, 예후판단에서 胃氣의 회복이 중요 지표가 된다는 점, 양생법에서 음식조절이 강조되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胃를 중심으로 서술하였으며 脾와 胃, 생산과 분배의 구분 없이 나열하였다. 본 논문의 방식에서는 생산 기능에 해당한다.

(2) 脾는 升清을 주하고 胃는 降濁을 주관한다.

脾胃의 기능을 升清과 降濁으로 대비하여 기술하였다. 脾主升清에서는 升清의 결과로 ①衛氣營血이 心肺로 上輸하고 온몸을 운명함, ②水穀精微가 頭面에 이르고 諸竅를 영양함, ③四肢肌肉을 기름, ④臟腑를 固攝하고 臟器를 편안하게 함을 들었다. 그러나 『內經』의 문장에서 실제 이러한 기능을 유추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①에서는 “人受氣於穀, 穀入於胃, 以傳與肺, 五臟六腑, 皆以受氣, 其清者爲營, 濁

10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86.

10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318.

106) “五臟脈 중 脾脈은 緩脈으로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脈象이므로 여기에서도 자세히 살피라고 하였다.”(白裕相. 『黃帝內經』의 三陰三陽 脈象에 대한 小考. 대한한의학 원전학회지. 2008. 21(3). p.112.)

107) “太陰이 중앙 土로서 六經을 모두 주관하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서 위로 뜨지 않으니 氣가 위로 부족하여 마음이 공허해 진다고 하였다.”(白裕相. 『黃帝內經』의 三陰三陽 脈象에 대한 小考. 대한한의학 원전학회지. 2008. 21(3). p.112.)

108) 『黃帝內經』과 관련한 서지학, 의사학, 의학이론, 임상학, 타학문과의 연계 등의 내용을 집대성하였다. 이후로는 『研究大成』으로 약칭하였다.

109)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出版社. 北京. 1999. pp.893-1008.

者爲衛.”(靈樞·營衛生會)와, “中焦受氣, 取汁變化而赤, 是謂血.”(靈樞·決氣)을 脾氣升清의 결과라 하였다. 그러나 두 문장에서 脾氣가 관여한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앞 문장의 내용은 營衛를 淸濁으로 구분한 것인데 脾氣升清과 어떤 관계인지 설명하기 어렵다. 뒤 문장에는 淸濁의 개념이 보이지 않는다. 두 문장은 胃에서 받은 穀氣가 營衛와 血의 재료가 됨을 설명한 문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③에서도 “今脾病不能爲胃行其津液, 四支不得稟水穀氣, 氣日以衰, 脈道不利, 筋骨肌肉, 皆無氣以生, 故不用焉.”(素問·太陰陽明論)과 ‘治痿獨取陽明’(素問·痿論) 구절을 예로 들었는데, 脾胃가 四肢肌肉에 水穀之氣를 생산하고 공급한다는 것 외에 淸濁의 의미는 찾을 수 없다. ④에서는 『黃帝內經』의 문장을 전혀 인용하지 않았으며, 升清이 ‘脾統血’ 작용을 가능하게 하고 中氣下陷을 막는다고 했는데 역시 淸濁의 내용을 유추해내기 어렵다.

胃主降濁에서는 ①糟粕이 下行함, ②受納을 가능하게 함, ③膽木之氣가 降함이 降濁의 결과로분, ④脾升과 胃降이 상호 연관됨을 말하였다. ①②③에서 근거한 인용문은 거의 모두 후대 의가의 설명이며, 『黃帝內經』을 인용한 것으로는 ①에서 “中氣不足, 溲便爲之變, 腸爲之苦鳴.”(靈樞·口問)이 유일하다. ④에서는 胃降하면 膽汁이 小腸으로 분비되어 음식소화를 돕는다고 하였는데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없다. 두 단락의 설명에서 脾升, 胃降은 『黃帝內經』의 내용을 반영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淸濁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淸濁을 분별하는 주체가 脾胃라는 점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3) 胃는 受納과 腐熟을 主하고 脾는 胃를 위해 津液을 운행한다.

이 부분에서는 胃의 受納腐熟과 脾의 津液運行을 설명하였다. 脾胃의 역할을 구분해 볼 수 있는 경우, 脾의 운행이 위의 受納을 돕는 기전, 脾病이 胃病을 유발하는 기능관계를 설명했다. 이는 본론의 脾의 분배 기능에서 설명한 것과 대체로 같다.

(4) 脾는 至陰에 속하며 五臟의 使가 된다.

至陰과 五臟之使의 의미를 설명했다. 至陰을 ‘腹部的 깊은 곳’과 ‘陰에 도달하다’는 뜻으로 풀이했다. 그러나 의미와 기능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五臟之使는 脾胃의 水穀之氣가 五臟의 물질적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과 脾胃가 人체 氣機運行의 樞紐가 된다는 점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이 부분은 『素問·刺禁論』에서 脾와 胃를 ‘使’와 ‘市’로 나눈 문장을 근거로 설명했는데, 이후의 설명에서는 脾胃를 모두 ‘五臟之使’로 표현하여 생산과 분배의 기능을 구분하지는 않았다. 脾胃가 樞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脾胃가 물질적 기초를 제공하고 분배하는 과정에서 升降出入의 중심이 되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본고의 조절 기능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5) 脾土와 時令의 관계

이 단락은 脾土의 시간과 방위 배속에 관해 논하였다. 4분법, 5분법, 8분법의 개념이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4분법은 四季에 배속된 경우를 말하고, 5분법은 長夏에 배속된 경우를 말하고, 8분법은 중앙의 방위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 이 중 四季에 대해서는 脾土가 나머지를 모두 관리하는 관점이 있음을 설명했다. 이는 조절 기능에 해당한다.

(6) 脾胃와 神志의 관계

脾胃의 기능과 神志증상의 연관성을 설명했다. 그 근거는 “脾氣虛則四肢不用, 五臟不安”(靈樞·本神)의 문장과, 脾胃가 氣機의 樞紐가 되므로 氣變化에 의한 神志증상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脾胃의 氣변화가 神志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五臟 중 脾胃만이 특이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다.

(7) 四肢는 諸陽之本이다.

이 부분에서는 ‘四肢者, 諸陽之本’을 해석하였다. 脾胃가 陽氣를 생산한다는 점과 脾胃가 四肢와 밀접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관련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이 부분의 내용은 脾의 기능을 설명했다기보다 여러 내용과의 관

련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비교 결과, 『黃帝內經研究大成』에서 설명한脾胃의 기능은 본문에서 정리한 분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脾胃의 기능이水穀精微를 생산한다는 점,脾胃를 구분했을 때脾는 분배의 기능에 중점이 있다는 점은 제시한 주장과 근거가大同小異했다. 몇몇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은脾胃를升清과降濁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 경우 주로後代의 설명을 인용하였으며,經文內에서 직접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升清降濁이 『黃帝內經』에서의生病理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당시 사람들이 이 관점으로脾胃를 설명했다고 주장하기는 부족해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後代에 정립된脾胃의 기능들에 『黃帝內經』의 문장들을 대응시키는 식으로 논의를 진행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 기타

(1) 脾統血

‘脾統血’은脾胃의 생리 기능을 설명할 때 자주 언급되는 구절이다. 주로 ‘脾藏營’이 포함된 문장을 통해統血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설명하는데,脾統血을 의미하는 것인지 확정할 수 없다. 『黃帝內經』에서營은水穀之精氣 중 맑은 것을 의미하며 주로衛氣와 대비하여 인체 내부를 자양하고 운영하는 것¹¹⁰⁾으로 설명되었다.營氣가血을 합성하므로¹¹¹⁾血의 운행과도 관련이 깊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黃帝內經』의 내용 중에 “脾가血을統攝한다.”는生리나病證에 관한 분명한 언급은 찾을 수 없다. 현대의 생리학에서統血이 주요한 기능으로 언급되고 있지만¹¹²⁾ 이것이 처음 언급된 것은 『難經·四十二難』¹¹³⁾으로 볼 수 있다.

110) “黃帝曰 營氣之道, 內穀爲寶. 穀入於胃, 乃傳之肺, 流溢於中, 布散於外, 精專者, 行於經隧, 常營無已, 終而復始, 是謂天地之紀.”(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113.)

111) “營氣者, 泌其津液, 注之於脈, 化以爲血, 以榮四末, 內注五藏六府, 以應刻數焉.”(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298.)

112) 전국한의과대학 생리학교수. 동의생리학. 서울. 집문당. 2014. pp.252-253.

(2) 脾主運化

‘脾主運化’는脾胃의 생리 기능에 관해 가장 자주 언급되는 구절이다. 『黃帝內經』에서는脾胃와 관련해 ‘運化’라는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현대의 생리학에서脾胃主運化의 설명을 찾아보면, “첫째 음식물의 소화흡수와 흡수된 수곡의精微를 전신으로散布하고 또 수곡의 정미로부터 기혈을化生하는脾胃의 작용을 말하며, 둘째胃에 들어온 수분의轉輸, 散布와排泄에 대한 조절작용을 말한다.”¹¹⁴⁾라고 하였다. 즉水穀으로부터 생산된 물질을 운행하는 것과水液代謝의 조절을 가리키는데 본고의 분류에 따르자면 주로 분배 기능에 해당하며 일부는 조절 기능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脾胃主運化는 주로脾胃陽의 활동으로 이해된다.¹¹⁵⁾ 『黃帝內經』에서는脾胃陽과脾胃陰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는데, 運化가陽的인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後代에脾胃陽 개념이 생겨난 것으로 추측된다.

2. 脾와 胃의 기능 비교

『黃帝內經』에서脾胃에 대한 설명은脾胃를 동시에 언급한 경우,脾胃를 대비적으로 설명한 경우,脾만 언급한 경우로 나뉘볼 수 있다. 첫째로脾胃를 함께 언급한 경우는 대부분 생산 기능에 대해 설명할 때이다.水穀은胃로 들어와 소화를 거친 후에야脾에 의해 각처에 공급되므로 생산 기능은胃와 함께 언급한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飢, 食慾, 感覺을 설명한 부분에서는 생산 기능을 설명하면서脾胃를 언급하지 않았다. 飢, 食慾, 感覺은 음식물이脾胃를 거치기 이전에認知하거나 통제하는 것인데脾가 그 주체임을 말한다. 반대로 『靈樞·海論』¹¹⁶⁾에서

113) “脾重二斤三兩, 扁廣三寸, 長五寸, 有散膏半斤, 主裏血, 溫五臟, 主藏意.”(전국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編. 難經. 서울. 범인문화사. 2010. p.108.)

114) 전국한의과대학 생리학교수. 동의생리학. 서울. 집문당. 2014. pp.252-253. p.247.

115) “脾의運化功能主要依賴於脾氣的氣化和升清以及脾胃陽的溫煦作用.”(王琦, 吳承玉 主編. 中醫藏象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2. p.395.)

116) “岐伯曰 胃者水穀之海, 其輸上在氣街, 下至三裏.”(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와 같이 胃만 언급한 경우도 있는데, 水穀을 들이는 기능을 위주로 이해할 수 있다.¹¹⁷⁾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脾胃의 기능을 대비적으로 설명한 경우이다. 이 경우 脾와 胃의 기능이 분배와 생산으로 분명하게 나누어진다. 脾胃의 구분은 病證을 대상으로 한 篇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咳論」, 「風論」, 「刺癰論」, 「標本病傳論」, 「病傳」, 「脹論」 등에서 脾와 胃의 증상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른바 소화기병에 해당하는 것은 거의 胃證에 속하며 脾證은 四肢와 관련된 증상들이 많다. 병증 설명에서 脾胃를 나눈 경우가 유독 많은 것은 연속적 과정인 생산과 분배의 구분이 생리적 상황에서는 큰 의미가 없지만, 병증을 설명할 때는 原因과 病所를 엄밀히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른 表裏臟腑와 달리 脾胃는 後天之本으로서 五臟의 상태를 좌우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때문에 五臟의 상태와 더불어 그 원료를 생산하는 胃 기능의 상태는 병증 판단에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脈을 설명한 篇들에서 五臟脈 뿐 아니라 胃氣의 존재 여부를 중시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胃를 언급하지 않고 脾만 설명한 경우는 앞서 말한 생산 기능의 일부와 조절 기능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조절 기능은 臟으로서 脾土가 갖는 특수한 지위에 의해 설명되는 개념이므로 六腑인 胃에 대한 설명은 불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볼 때 胃의 기능은 水穀之氣의 생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 脾의 기능은 생산된 水穀之氣를 분배하는 것에 중점이 있으며, 생산 및 분배를 主宰하는 것, 土臟으로서 氣機를 조절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脾의 속성과 기능의 관계

『黃帝內經』은 여러 상징과 비유를 통해 脾臟의 속성을 표현하였다. 脾臟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개념은 至陰이다. 至陰은 가장 낮고 깊은 곳에 위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낮고 깊다는 공간적 표현은 四臟을

비롯한 모든 부분의 아래에서 그것들을 ‘떠받치는’ 기능적 속성을 갖는다. 이는 脾가 생산한 水穀之氣가 인체의 다른 부분들이 활동하는 밑천이 됨을 뜻한다. 때문에 至陰은 본론에서 말한 脾의 생산 기능을 대표하는 표현이며, ‘떠받치다’는 말에는 공급의 의미도 일부 포함된다. 『素問·刺禁論』에서는 脾를 ‘使’라고 칭하였다. ‘使’는 ‘부리다’, ‘시키다’는 뜻으로 누군가를 대신해서 하는 행위를 말한다. 『素問·刺禁論』에서 ‘市’와 대비해서 쓰인 것으로 보아 ‘모인 것’을 전달하는 것이며, 胃가 水穀之海인 점을 생각할 때 水穀之氣를 분배하는 기능을 나타낸다. 『素問·五運行大論』에서는 脾의 속성을 ‘靜兼’, ‘化’, ‘謐’ 등으로 표현했다. 이는 모두 안정, 연결, 조절의 의미를 띠며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가진다. 代脈의 부드러운 脈象은 포용하고 중재할 수 있는 脾의 속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속성은 四臟을 사이에서 연계하고 氣機를 조절하는 脾의 기능과 연관된다. ‘孤臟’은 특별히 주관하는 계절이 없다는 의미와 더불어 수행하는 일의 功勞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히 주관하는 계절이 없다는 것은 四季를 주관한다는 말과 같으며 연계와 조절의 속성을 표현한다. 功勞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기 때문인데 至陰과 같이 ‘떠받치는’ 역할을 의미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각기 나타내고자 하는 脾의 단면을 묘사하였다. 그러나 묘사된 속성과 기능들은 별개의 것이 아니며 서로서로 포개져있다. 생산과 분배는 연속적이고 유기적인 과정이다. 또한 생산과 분배를 알맞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主宰者가 필요하다. 『素問·太陰陽明論』에서는 ‘土者生萬物而法天地, 故上下至頭足, 不得主時也.’라 하여 萬物을 생하는 생산자, 머리에서 발까지 上下로 공급하는 분배자, 天地의 이치에 따라 그것을 主宰하는 조절자의 성격을 한 문장에 모두 담았다. 그리고 이러한 속성을 포괄한 것을 ‘土’라 하였는데 脾臟의 생산, 분배, 조절 기능을 모두 드러내는 상징으로 볼 수 있다.

1985. p.174.)

117) ‘海’는 물이 모여드는 곳을 의미하므로 水穀之海는 水穀이 모이는 곳을 의미한다.

IV. 結 論

본 논문에서는 『黃帝內經』에 나타난 脾의 기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먼저 經文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이어서 『黃帝內經』의 이론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최근 연구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黃帝內經』에 나타난 脾의 기능은 생산 및 분배에 관한 기능과 인체 氣機를 조절하는 기능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2. 생산과 분배의 기능은 생산에 중점을 둔 경우와 분배에 중점을 둔 경우로 구분된다. 생산은 인체에 필요한 水穀之氣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말하며, 분배는 水穀之氣를 인체의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기능을 말한다. 氣機의 조절은 四季와 四間方에 배속된 脾土가 인체의 氣흐름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기능을 말한다.

3. 『黃帝內經』에 나타난 脾의 기능에 대한 기존 연구는 본 논문의 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대부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용 중의 脾胃의 升清과 降濁에 기능, 脾統血 등에 대한 설명은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 이러한 오류는 『黃帝內經』의 내용을 후대의 이론을 기준으로 파악하려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4. 『黃帝內經』에 나타난 脾와 胃의 기능을 비교해보면, 胃의 기능은 水穀之氣 생산에 중점이 있다. 脾의 기능은 생산된 水穀之氣를 분배하는 것에 중점이 있으며, 생산 및 분배를 主宰하는 것과 氣機를 조절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5. 『黃帝內經』에 보이는 至陰, 孤藏, 使, 靜兼 같은 표현들은 脾臟의 속성과 기능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References

1. Hong WS. Jeonggyohwangjenaegyeong Somun. Seoul. Publisher of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98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2. Hong WS. Jeonggyohwangjenaegyeong YoungChu. Seoul. Publisher of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98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3. Zhang JB. Leijing.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7.
張介賓. 類經.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4. Park CK. Annotated text of Hwangjenaegyeong somun. Paju, Gyeonggi-do. Jipmoondang. 2005.
樸贊國. 懸吐黃帝內經素問注釋. 경기도 파주. 집문당. 2005.

5. Zhang XG. Ingsujiezhulebian. Zhejiang. Zhejiang Science and Technology Press. 1986.
樟虛毅. 靈素節注類編. 浙江.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6. Wang B. Huangdineijingsuwen. Shenyang. Liaoning Science and Technology Publishing House. 1997.
王冰. 選注. 黃帝內經素問. 瀋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7. Gao SZ. Huangdisuwenzhixie. Beijing. Science and Technology Document Publishing House. 1982. p.312.
高士宗. 黃帝素問直解.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2. p.312.

8. Ma S. Huangdineijingshuzhuzhengfawei.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94.
馬蒔.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9. Written by Yang SS, Proofread by Cian CC. Huangdineijingtaisu. Beijing. Academy Press(Xue Yuan). 2006.
楊上善. 選注. 錢超塵.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10. Zhang ZC. Huangdineijingshujizhu.

- Beijing. Academy Press(Xue Yuan). 2008.
- 張志聰. 黃帝內經靈樞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8.
11. Compiled by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of all the colleges of Korean medicine. Nanjing. Seoul. Beobin publisher. 2010.
全國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編. 難經. 서울. 법민문화사. 2010.
 12. Compiled by Physiology professors of all the colleges of Korean medicine.
전국한의과대학 생리학교수. 동의생리학. 서울. 집문당. 2014.
 13. Wang HT ed.. Huangdineijingyanjudachung. Beijing. Beijing Publishing House. 1999.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 北京出版社. 1999.
 14. Compiled by Wang Qi, Wu CY. Zhongyizangxiagnxue. Beijing. Renminweichengchubanshe. 2012.
王琦, 吳承玉 主編. 中醫藏象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2.
 15. Su JH. Study on Spleen Yin idea of Neijing. WORLD CHINESE MEDICINE. 2009. 4(5). pp.283-284.
蘇建華. 『內經』脾陰思想探析. 世界中醫藥. 2009. 4(5). pp.283-284.
 16. Gao XL et al.. Cognition about the theory “Spleen don’t organize any season.” in Huangdineijing. Chinese Medicine Modern Distance Education of Asia. 2013. 11(13). pp.1-2.
高小玲 外 3人. 對『黃帝內經』“脾不主時”的認識. 中國中醫藥現代遠程教育. 2013. 11(13). pp.1-2.
 17. Li IH et al.. Heart Governing Blood and Blood Produce Spleen” -theories and Application Study of Yellow Emperor's Internal Cannon of Medicine. Zhongyiyaoxinxi. 2010. 27(2). pp.3-5.
李銀華 外 2人. 『內經』“心生血、血生脾”理論及應用探討. 中醫藥信息. 2010. 27(2). pp.3-5.
 18. Chen LB. Relationship between Spleen and Stomach in Neijing. Journal of Fujian University of TCM. 2013. 23(3). pp.71-72.
陳麗斌. 『內經』中脾與胃的關係. 福建中醫藥大學學報. 2013. 23(3). pp.71-72.
 19. Shen GM et al.. Analysis on the theory of the relevance of Heart and Spleen in Huangdineijing. Journal of New Chinese Medicine. 2007. 39(11). pp.94-95.
潘光明 外 2人. 『黃帝內經』心脾相關理論淺析. 新中醫. 2007. 39(11). pp.94-95.
 20. Tang CA. Theory of same treatment for the liver and spleen in Neijing. 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al Literature. 2011. 3rd. pp.25-28.
湯川安. 『內經』之肝脾同治論. 中醫文獻雜誌. 2011. 3期. pp.25-28.
 21. Hao J, Hao JR. Analysis on clinical significance of syndrome differentiation and treatment with visceral manifestation about Spleen and Stomach in Neijing. TCM Res. 2011. 24(11). pp.5-7.
郝軍, 郝紀蓉. 『內經』脾胃藏象辨證論治思想的臨床意義淺析. 中醫研究. 2011. 24(11). pp.5-7.
 22. Li SP, Li L. Study on the rule of Syndrome of Spleen Diseases. Liaoning 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04. 34(1). pp.20-21.
李淑萍, 李玲. 『內經』脾病證候規律初探. 遼寧中醫雜誌. 2004. 34(1). pp.20-21.
 23. Liu LM. Study on Generation Science Of

the Visceral Picture Theory of spleen in
Internal Classic of Medicine. Thesis of
Graduate School of Liaoning Universit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01.

劉黎明. 『內經』脾藏象理論發生學研究. 遼寧中
醫大學院碩士論文. 2001.

24. Wang HL. Study on the cultural elements
of spleen visceral manifestation terms in
Huangdineijing. Thesis of Graduate
School of Liaoning Universit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4.

王宏利. 『黃帝內經』脾藏象術語文化要素研究.
遼寧中醫大學院博士論文. 2014.

25. Baik YS. A Study on Pulse Condition of
Sameumsamyang(三陰三陽) in 『
Hwangjaenasegyeong』. J. Korean
Medicine Classics. 2008. 21(3).

白裕相. 『黃帝內經』의 三陰三陽 脈象에 대한
小考.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8. 21(3).